



인터뷰

대담/姜 販 求

〈매일경제신문 산업부기자〉

“나프타가격 조정 앞서 유가관리에 공식 반영해야”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제기로 발단된 나프타가
격구조 문제는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간의 현
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유화학계는 이미 가격체계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서를 관련당국에 제출하여 앞으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석유협회의 康星喆부회장은 지난
8월 1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유
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요지이다.
〈편집자註〉



康 星 喆 석유협회 부회장

—현재 정유업계와 유화학계간에 벌어지고 있는 가격논쟁에 대한 정유업계의 기본입장은?

『나프타가격이 비록 자유화되었다고는 하나 정부가 고시유종의 가격관리를 위해 기준으로 삼는 평균판매복합단가 산정시 나프타의 기준가격이 반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고 있다. 즉 나프타가격 인하시 연산품인 타 석유제품가격의 인상요인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정유사는 나프타의 실패매가격이 유가반영가격보다 낮음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유가반영가격	'92. 8월가격	차이	비 고
19,545원/B	18,797원/B	▲748원/B	연간 약 472억원 손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나프타기준가격에 대한 유화학계의 의견을 유가관리에 공식 반영하지 않는 한 정유업계는 유화학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유화학계는 현재 가격구조가 수요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외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화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현물시장가격은 FOB 가격으로서 한국까지의 운임(톤당 약

15\$)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가격인 C & F JPN 이 오히려 더 싼 수준이다. 또한 국내 나프타가격 산정시의 부대비용 1.9%에는 체선료, 수송중 감소(Loss)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실제비용보다 낮은 실정이다. 日本의 경우 국내생산나프타가격은 [수입가격(CIF) + 2,000¥/kl]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부대비용 2,000¥/kl를 CIF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 볼 경우 약 10% 수준으로 국내나프타 가격산정시 부대비용 1.9%의 5배에 달하고 있다.』

—유화업체는 특히 나프타의 비중차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나프타 비중차이에 따라 중량/부피의 환산계수가 달라지나 사용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BTX 용	크라킹 용
나 프 타 비 중 환 산 계 수	Heavy Naphtha 0.73~0.74 8.5 ~8.6	Light Naphtha 0.67~0.68 9.3 ~9.4

이에 따라 정유사는 나프타비중이 0.69~0.71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중차이를 보정해 주고 있다. 日本도 나프타비중이 0.69~0.71 범위내인 경우 동일가격을 적용하며 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비중차이를 보정해 주고 있다.』

—동자부가 국내수급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나프타 수출에 대한 정유업체의 견해는?

『동자부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나프타의 동시수출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그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부의 수출제한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나프타가 전량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수입에 대한 제한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제한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석유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경제성에 따라 수출입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 업체간의 가격논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유업체의 구상은?

『유화업체가 요구하는 가격단위를 무게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정유사의 모든 석유제품 판매 단위가 부피이고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정부의

유가조정이 모두 부피기준이므로 현실적으로 변경이 곤란하다. 그러나 정유사가 비중차이에 따른 가격보정주장을 수용하려면 이로 인한 정유사의 추가손실발생도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유가관리상 나프타의 기준가격이 변경되어야만 한다.』

—유화업체가 가격구조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최근 유화업체의 경영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화업체가 겪고 있는 경영난은 십분 이해가 가나 정유업체 역시 '91년도 적자경영(세전 166억 원 적자)에 이어 절프사태 등으로 인한 손실미보전분이 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원유가격 및 환율상승, 정제비 현실화 지연 등으로 6천억원의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유업체의 손익 및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화업체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양 업체간의 논쟁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번 문제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다만 정부가 유가관리상 나프타 기준가격 설정문제, 나프타 수출입문제 등을 산업지원, 국민경제적 부담방지 등 정책적 차원에서 종합검토를 거쳐 판단할 경우, 업체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시 동 정부방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화업체가 국내나프타를 구입할 때 많은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즉 국내나프타를 구입할 경우,

- ①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고(연간계약),
- ②월간 가격이므로 안정성이 있고,
- ③소량주분이므로 자금부담 및 저장시설 건설부담이 경감되며,
- ④또 유화업체가 나프타를 수입할 경우 대부분 일본도착 C & F 가격에 톤당 2~5\$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격면에서도 국산 나프타가 유리하다.』